

오장환 시의 금기 인식과 위반 충동

서영희*

|| 차례 ||

- I. 서론
- II. 봉건질서와 전통에 대한 저항
- III. 윤락의 절망적인 공간과 자학
- IV. 문명의 비만성에 대한 탐색
- V. 결론

【 】

금기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요소로 위반의 충동을 필수적으로 내재한다. 오장환은 위반의 주체가 되어 봉건질서에 저항하고 사회적 타자로서의 자아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의 작품은 낡은 전통사회와 근대도시의 허위성을 고발하였으며 위반의 기호로 타락한 성을 택하여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발산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는 병든 도시의 비만성을 통해 시적자아를 극단적인 방황과 퇴폐로 몰고 갔다. 또한 유교적 가부장사회에서는 차별의 대상이었고 1930년대 식민자본주의 하에서는 성적 수탈의 이중적 절고를 경험하던 여성을 통해 비극적이고 타자화된 현실을 드러냈다. 이들 여성들의 전략은 당대 사회적 제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점이 되었으며 오장환의 작품이 자아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질문하는 인식론적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장환의 작품은 전통과 근대의 경계에서 비합리적인 금기에 도전하였으며 존재의 위기를 탐구하고 사회변화와 역사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성과 합리성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식민자본주의 아래 몰화되어가는 현실을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오장환, 봉건 질서, 금기, 위반, 존재 탐구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교수

I. 서론

금기(taboo)는 가리거나 금하는 일, 지켜야만 하거나 삼가는 일을 말한다. 금기는 공동체의 안위와 존속,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법률이나 관습 이상으로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정체성을 유지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금기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영역에 속하며 감정에 호소한다. 금기의 반대말은 노아(noa)라고 하는데, 노아는 ‘자유로운’이라는 뜻이 있다.¹⁾ 금기는 권력의 간접적인 실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기는 권력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이 되고 울타리가 되면서 체제 유지의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²⁾ 오장환의 시에서 금기를 형성하는 주체는 유교적 권력의 질서이다. 이것은 세계를 이분법으로 질서화하고 상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권력질서는 절대적이고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며, 권력질서가 형성하는 금기의 영역에는 필연적으로 위반이 동반된다. 위반은 일종의 원죄체함과 같은 것으로 두려움과 고뇌를 동반하는 종교적 감정과도 유사하다. 위반의 시공간에서는 억눌려 있던 것들이 증폭하고 이러한 감정의 증폭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금기는 원칙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금기를 위반하는 주체는 대체로 주변인들이다. 이들은 그 자체로 경계시 되며 이들의 위반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지향으로서의 위반³⁾이다. 이들의 위반은 기존의 질서나 규범을 거부하며 새로운 질서화에 대한 가능성을 잠재한다. 금기는 기존 체제의

1) 엘리아테, 이은봉 역, 『성과 속은 무엇인가』, 『성과 속』, 한길사, 1998.

2) 정종진, 『금기 형성의 특성과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의미』, 『인간연구』, 23호, 2012, p.86.

3) 정종진, 위의 논문, p98.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입장에 놓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반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으며 위반에는 비난과 처벌이 따른다. 위반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배제이다. 배제의 주체는 가부장제라는 제도화된 권력에 의해 조종된다. 가부장적 권력은 사회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고 상대를 부당하고 위대한 대상으로 규정하여 배제한다.

금기와 위반의 메커니즘은 항상 상호모순적인 양상으로 공존한다. 금기는 비합리적이다. 이러한 비합리성에 대해 위반의 충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금기라고 하기 어렵다. 금기와 위반은 무의식 속에 내재되고 혼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속성⁴⁾으로 권력에 의해 정당화되고 은밀하게 조종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속성을 지닌다. 사회변화 과정에서 금기는 사회를 통합, 정체성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이끌고 지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와 인간, 인간과 사회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금기와 위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오장환은 충북 보은군 해주오씨 집성촌에서 서출로 태어났다.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서 서출이라는 점은 그의 삶을 제약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오장환에게 있어서 이러한 태생적 제약은 낡은 전통과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의 문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였다. 그는 동경유학을 떠났으나 일 년 만에 귀국하여 서정주, 김동리, 여상현, 김달진, 함형수, 김상원 등과 시인부락 동인을 결성하였다. 『성벽』과 『헌사』에 실린 그의 초기 작품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쓴 것들이다.

오장환의 습작기와 초기 시편들은 대부분 유교적 전통을 부정하고 가부장적 낡은 관습에 대한 거부를 드러낸다. 그의 시집 『성벽』과 『헌사』에서

4) 정종진 위의 논문, p.94.

전통과 진보의 대립은 하나의 축을 이룬다. 서출의 신분으로 성장한 시인에게 전통에 대한 거부는 고향을 벗어나 드넓은 도시와 해항지대를 방랑하며 완고한 인습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자유에의 열망으로 드러난다. 병적인 관능과 퇴폐적인 경향에 대한 탐색 또한 신분제도를 비롯한 오래된 유습을 거부하고 파기하고자 하는 의지의 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유와 인간 존엄성에 기초하는 근대적 진보적인 사상으로 발전해 나갔다.

초기 대표작품이라 할 수 있는 「성벽(城壁)」, 「성씨보(姓氏譜)」, 「종가(宗家)」, 「고전(古典)」 등을 비롯하여 「온천지(溫泉地)」, 「매음부(賣淫婦)」, 「정문(旌門)」, 「독초(毒草)」, 「해수(海獸)」, 「수부(首府)」, 「선부(船夫)의 노래」, 「불길한 노래」, 「할렐루야」, 「마리아」 등에는 견고한 유교적 이념과 전통에 대한 도전, 윤락의 절망적인 공간에서 드러나는 비애와 자학, 도시의 비만성과 병적이고 위선적인 삶, 죄성에 대한 인식 등 시적자아의 들끓는 내면 풍경과 당자의 불길하고 타락한 상상력을 통해 인간 본연의 고뇌와 허무의식, 절망적인 현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장환에 대한 연구는 최두석이 전집⁵⁾을 간행하고 그의 시적 편력을 추적하면서 시인의 진보주의 정신을 검증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김재용은 오장환의 시세계를 식민지 주변부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⁶⁾하였으며, 김학동은 전통의 거부와 퇴폐적 경향에서부터 죽음의식과 고향회귀, 좌경적 이념의 추구에 이르기까지 오장환의 시적 변이 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적하였다.⁷⁾ 이러한 전집과 평전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성과가 이어졌으며 최근에

5) 최두석 편, 『오장환의 시적 편력과 진보주의』, 『오장환 전집 2』, 창비, 1989, p.204.

6) 김재용, 「식민지 자본주의와 근대 문명의 내파」, 『오장환 전집』, 실천문화사, 2002, p.648.

7) 김학동, 『오장환 평전』, 새문사, 2004.

이루어진 연구⁸⁾의 경우 상당수 연구들이 오장환의 작품이 가지는 근대의 불모성과 이러한 불모성에 갇힌 여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오장환에게 있어서 금기는 견고한 유교적 지배 이데올로기이자 성스러운 성모의 몸이며 이것은 절대성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퇴폐, 즉 욕망의 집결지인 도시의 육체성에 대한 경험과 탐색으로 이어진다. 오장환은 위반의 주체가 되어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를 배제하고 축출하는 방식을 통해 갈등과 방황, 극단적인 자학으로 금기의 절대성에 저항한다. 그는 금기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간의식의 황폐화와 퇴폐주의를 선택한다. 이러한 위반의 방식을 통해 오장환은 병든 현실과 존재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상황을 드러내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한다.

오장환의 작품은 여성성을 통해 현실인식을 구체화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유교적 여성성을 통해서도 봉건질서의 몰락을 인식하고 매음부를 통해서도 근대문명의 환멸을 인식하며 모성적 여성을 통해서도 유랑의 삶을 종식⁹⁾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장환 전집과 평전을 기본 자료로 하여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금기를 중심으로 가부장적 전통의 절대성과 이에 대한 위반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부정과 저항, 원죄

8) 김진희, 『1930년대, 식민지 근대의 불모성과 여성-오장환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7권, 2002, pp.217-242.

김종태, 『오장환 시의 여성성에 나타난 현실 인식 방법 연구』, 『한국시학연구』 14호, 2005, pp.209-235.

강경희, 『오장환 시의 근대적 미의식 연구』, 『어문연구』 33권, 2005, pp.305-330.

도종환, 『오장환 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2005.

남기혁, 『오장환 시의 육체와 퇴폐, 그리고 모멸의 문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집, 2012, pp.155-190.

손민달, 『물화가 보여준 오장환 시의 근대성』, 『국어국문학』 171호, 2015, pp.505-534.

9) 김종태, 위의 논문, p.214.

의식, 문명의 비만성과 퇴폐성에 대한 탐색 등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II. 봉건질서와 전통에 대한 저항

오장환에게 있어 자아를 억압하는 것은 유교적 전통과 봉건적 가부장제의 논리이다. 그는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전근대적 공동체의 낡은 권력과 억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유교적 질서 구조 속에 온전히 편입될 수 없었던 오장환의 개인사 및 가족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는 봉건사회를 지탱해 온 유교적 전통을 굴레이자 버려야 할 인습으로 보고 단절하고자 하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가부장적 윤리와 도덕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으며, 유교적 전통이 요구하는 삶이란 자아를 무너뜨리고 비극으로 치달게 하는 타자적 삶을 작품을 통해 밝힌다.

내 성은 오씨. 어째서 오가인지 나는 모른다. 가급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해주로 이사 온 일 청인(一淸人)이 조상이라는 가계보의 검은 먹글씨. 옛날은 대국 승배를 유심히는 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니는 진실 이가였는지 상늬이 었는지 알 수도 없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보를 창작하였고 매매하였다. 나는 역사를, 내 성을 믿지 않아도 좋다. 해변가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거웁고나. 수통하고나. 이기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을 잊으려면은 나는 성씨보가 필요치 않다. 성씨보와 같은 관습이 필요치 않다.

- 「성씨보(姓氏譜)」 전문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층층 한 울 속에서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할머니와 아들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넣는다. 시집갔다 쫓겨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언니 이종오빠. 한참 쪼뽕 올리던 옛날에는 오조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끈질 잡아들여다 모발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종복사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뻗뻗한 달갈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나간다.

- 「종가(宗家)」 전문

전통적 유교 공동체가 가지는 억압과 폭력성, 배타성의 문제는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상대를 차별화하며 배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오장환은 유교적 세계의 부도덕성을 「성씨보(姓氏譜)」와 「종가(宗家)」를 통해 통렬하게 비판한다. 유교적 질서는 전통 사회를 유지시키고 지탱시키는 가치이며 저항이 금지된 절대 권위, 금기의 세계에 속한다. 이 전통은 그의 시 「성벽」¹⁰⁾에서처럼 「편협한 야심」으로 “진보를 허락지 않”았으나 세월이 못 이겨 “세세전대만년성(世世傳代萬年盛)”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이끼와 등녕쿨이 서로” 얽혀 퇴락하고 있다.

10) 세세전대만년성(世世傳代萬年盛)하리라는 성벽은 편협한 야심처럼 검고 뻣뻣하거나 그러나 보수는 진보를 허락지 않아 뜨거운 물 끼얹고 고춧가루 뿌리던 성벽은 오래인 휴식에 인제는 이끼와 등녕쿨이 서로 엉키어 면도 않은 터거리처럼 지지분하도다.
- 「성벽(城壁)」 전문.

『성씨보(姓氏譜)』는 오장환의 자조적인 개인사로 시작한다. “내 성은 오 씨 어째서 오가인지 나는 모른다.” 오장환은 『성씨보(姓氏譜)』를 통해 자신이 속한 부계 혈통을 부정하고 낡은 전통을 냉소적인 태도로 조롱한다. 『성씨보(姓氏譜)』에서는 억압적인 전통에 대해 품었던 시인의 회의와 반감이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그에게 족보는 존재의 근원을 입증해주는 문서가 아니라 위조, 변조되어 매매되고 있는 물화된 상품이다. 그는 전통조차 상품화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조작된 가계의 역사에 대한 환멸을 나타내며 스스로를 제명하고자 한다. 제명은 위반자에게 가하는 처벌로 오장환은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제명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조롱한다. 이것은 “해변가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거웁고 나.”에 나타나듯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교적 전통의 권위는 쇠락하고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나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힌다. 시적자아는 전통의 부도덕성과 비합리성에 대해 야유하며 허구적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자기비판은 자기선언에 가깝다. 그러나 부계적 질서의 권위를 지속하려는 야욕은 계속되며 이러한 모습은 닫힌 공간인 『종가(宗家)』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종가(宗家)』에서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기와집”, “神主” 등을 통해 종가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드러낸다. 돌담으로 튼튼하게 가려져 있다는 것은 표면상 종가의 권위가 잘 보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폐쇄적이고 위선적인 종가의 일면을 예고한다. 돌담은 방어적인 의미와 함께 낡은 유습을 고수해나가는 보루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또한 외부와 단절된 전통사회의 완고함을 보여준다. 신주는 “대머리에 곱팡이가 나도록” 방치되다가 제삿날에만 높이 모셔진다. 지손들은 모범이 되어야 할 종가의 모습과는 달리 불구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종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과 “과부가 되어온 큰고모”는 유교적 질서에

희생된 여성들이다. 종가는 권위로 마을 사람들을 잡아들여 “모발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며 권력을 휘둘러 왔지만, 고리대금으로 살아가는 영락한 모습을 보이며 유교적 절대 권력의 쇠퇴를 보여준다.

전통성에 대한 부정은 점차 시적 인식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해 나간다. 유교적 관습과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 일축하는 「성씨보(姓氏譜)」와 「종가(宗家)」의 기저에는 세계관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통이 가지는 문화적 기능은 도외시되고 있으며,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보다는 타자로서의 시각을 견지한다. 「성씨보(姓氏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적자이는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축출하는 방식을 통해 위반에 따른 처벌과 의례화된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을 보여준다. 「성씨보(姓氏譜)」와 「종가(宗家)」는 오장환의 개인사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신분 제도를 비롯한 유교적 전통을 부정하고 파기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발전해나 가며 인간 존엄성에 바탕하는 근대적 의식으로의 방향성을 드러낸다.

유교적 윤리관에 대한 풍자는 「정문(旌門)」¹¹⁾에서 더욱 통렬하게 나타난다. 「정문(旌門)」은 충신과 효자, 열녀들을 기리기 위해 세우던 붉은 문이다. 오장환은 「정문(旌門)」에서 유교적 폐습과 공동체의 폭력에 희생된

11) 열녀를 모셨다는 정문은 슬픈 울 창살로는 음산한 바람이 스미어늘고 붉고 푸르게 칠한 황토 내음새 진하게 난다. 소저(小姐)는 고운 얼굴 방안에만 숨어 앉아서 색시의 한시절 삼강오륜 주송지훈(朱宋之訓)을 본 받아왔다. 오 몰래 갖는 할멈의 진기한 이야기 중놈의 과객의 화적의 초립동이의 꿈보다 선명한 그림을 보여줌이여. 시꺼먼 사나이 힘세인 팔뚝 무서운 힘으로 으스스리게 안아준다는 이야기 소저에게는 몹시도 떨리는 식욕이었다. 소저의 신앙은 여섯 해 아래 소저는 시집을 가도 자위하였다. 쭈군, 쭈군 지껄이는 시집의 소문 소저는 겁이 나 병든 시에미의 땀맛을 훔아보았다. 오 효부라는 소문의 펼쳐짐이여! 양반은 죄금이라도 상놈을 속여야 하고 자랑으로 누르려 한다. 소저는 열아홉. 신앙은 열네살 소저는 참지 못하여 목매이던 날 양반의 집은 삼엄하게 교통을 끊고 젊은 새댁이 독사에 물리려는 낭군을 구하려다 대신으로 죽었다는 슬픈 전설을 쏟아내었다. 이래서 생겨난 효부열녀의 정문 그들의 종진은 가문이나 변화하게 만들어보자고 정문의 광영을 붉게 푸르게 채색하였다. - 「정문(旌門)」 전문.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전통 명분사회의 허구와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고발한다. 유교적 가족공동체인 종가와 봉건 가부장제는 그 자체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권위와 금기를 형성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곡 아래 소저는 자살을 선택하고 가문은 소저의 죽음을 조작하여 열너리는 명분을 만들어낸다. 소저의 자살은 봉건적 인륜의 허위성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완고한 구세력에 대한 진보의 반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봉건질서의 몰락을 예언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은 전통과 근대의 이중적인 억압구조였다. 「종가(宗家)」와 「정문(旌門)」에 나타난 여성들의 불행은 유교적 질서구조의 이율배반적 구조와 허위, 비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오장환은 이들 여인들의 몰락이 유교적 세계의 위기 및 몰락과 등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그는 유교적 억압 구조 아래서 자신을 보전하지 못하고 희생되는 여성의 타자적 삶을 통해 모순된 계급의식과 완고한 전통의 금기에 저항하고 전근대와 근대의 경계에 놓인 자아의 근원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확인에서 식민지 근대의 구체적인 비극을 인식하는 지점으로 나아간다.

Ⅲ. 윤락의 절망적인 공간과 자학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민족적 모순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역사적 현실의 참여한 한 지점이다. 여성의 신체는 생물학적 신체만이 아니며 성·문화·계급·인종의 맥락이 지나가는 장소¹²⁾이다. 유교적 질서 속에서 오장환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봉건사회의 질서에 도전하고 나아가 이러한 질서에 희생되는 여성을 통해 저항의

식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오장환은 전통의 낡은 규범에 저항하며 위반의 기호로서 몸의 기체에 관심을 가진다. 자아를 억압하는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은 여성의 몸을 위반의 장소이자 통로로 삼는다. 전통이라는 불가항력의 현실에서 오장환은 공허감과 패배감에 매몰되고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금기에 저항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다. 자아를 억압하는 현실은 매음부나 기생과 같은 퇴폐적인 여성의 몸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는 저항정신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곧 존재의 근원을 고민하고 삶의 의미를 질문하는 인식론적 차원으로 발전해 나간다.

푸른 입술. 어리운 한숨. 음습한 방 안엔 술잔만 흰하였다. 질척척한 풀싹과 같은 방 안이다. 현화식물(顯花植物)과 같은 계집은 알 수 없는 웃음으로 제 마음도 속여온다. 향구, 향구, 들르며 술과 계집을 찾아다니는 시꺼먼 얼굴. 윤락된 보헤미안의 절망적인 심화(心火). - 퇴폐한 향연 속. 모두 다 오줌싸개 모양 비척거리며 얇게 떨었다. 괴로운 분노를 숨기어가며…… 젓가슴이 이미 싸늘한 매음녀는 파충류처럼 포복한다.

- 「매음부(賣淫婦)」 전문

전당포 고물상이 지저분하게 늘어선 골목에는 가로등도 켜지는 않는다. 죄금 높다란 포도(鋪道)도 깔리우지는 않았다. 죄금 말쑥한 집과 죄금 허름한 집은 모조리 충충하여서 바짝바짝 친밀하게는 늘어서 있다. 구멍 뚫린 속내의를 팔러 온 사람, 구멍 뚫린 속내의를 사러 온 사람. 충충한 길목으로는 검은 망토를 두른 주정꾼이 비틀거리고, 인력거 위에선 차(車)와 함께 이미 하반신이 썩어가는 기녀들이 비단 내음새를 풍기어가며 가늘은 어깨를 흔들거렸다.

- 「고전(古典)」 전문

12) 나병철, 『식민지 시대의 사회주의 서사와 여성담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p.312.

나요 오장환이요 나의 곁을 스치는 것은, 그대가 아니요. 검은 먹구렁이요.
당신이요.

외양조차 날 닮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한 신용하리요.

이야기를 들리요. 이야길 들리요.

비명조차 숨기는 이는 그대요. 그대의 동족뿐이요.

그대의 피는 거뭇다지요. 붉지를 앓고 거뭇다지요.

음부 마리아 모양, 집시의 계집애 모양,

당신이요. 충충한 아구리에 까만 열매를 물고 이브의 뒤를 따른 것은 그대
사탄이요.

차디찬 몸으로 친친이 날 감아주시오. 나요. 카인의 말예(末裔)요. 병든 시
인이요. 벌(罰)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능금을 따먹고 날 낳았소.

기생충이요. 추억이요. 독한 버섯들이요.

- 「불길한 노래」 전문

오장환은 봉건적 지배논리, 즉 남성 지배의 원리가 가져온 현실 파괴와 여성의 파괴를 통해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적 폭력에 저항하고 이러한 세계 속에서 파편화되어가는 자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오장환에게 가부장적 논리는 개인사적 의미의 차원을 벗어나 사회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전통 논리와 식민 논리의 이중적 억압구조 아래서 소외와 결핍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매음녀와 기생, 이브를 통해 왜곡된 반항 의식을 보여준다. 매음녀와 기생은 식민지 도시문명이 드리운 짙은 그림자 속에서 타락해가는 전형적인 인물이며 퇴폐성의 기호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인물이다. 매음녀와 이브는 자아의 기반을 상실한 오장환에게 저항의식을 이끌어 갈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그는 매음녀와 이브를 통해 자아를 퇴폐의 극단으로 이끌어간다.

성은 생명을 생산하는 에너지의 근원이며 동시에 억압에 저항하는 자유 기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오장환의 시에 나타나는 퇴폐성은 자이를 찾기 위한 극단적인 반항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매음부(賣淫婦)』와 『고전(古典)』에서는 왜곡된 욕망과 불완전한 자이를 의미하는 매음녀와 기녀의 몸을 노출시키며 유구하게 이어온 전통의 금기에 도전한다. 현화식물 같은 매음부와 하반신이 썩어가는 기녀의 몸은 에로틱한 이미지를 노출하며 병적인 관능과 죽음 등의 추악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환기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몸은 욕망과 저항의 장소이자 자기인식의 상징적인 장소이며 실존의 장소가 된다.

오장환은 여성의 몸을 자기 파멸의 한 양상으로 실현하며 이를 통해 억압적인 유교질서와 비극적 시대상을 강화한다. 시인의 좌절은 『매음부(賣淫婦)』와 『고전(古典)』을 통해 현실 속으로 더 깊이 함몰되고 육체를 상품화하는 매음부와 기녀들에 동화되어 자기타락을 실현한다. 이러한 성적 타락은 원죄 의식과 실낙원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자기 환멸과 자기부정의 세계로 나아간다. 원죄의 체험은 완성된 위반, 성공한 위반으로 이어¹³⁾진다. 자기부정의 기저에는 자기긍정이 깔려있는 것으로 오장환은 금기에 대한 위반의 기호로 타락한 성을 택하면서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 발산을 이루고자 한다.

한편 여성의 성적 타락은 역사의식과 현실의식을 내포한다. 불모화된 여성은 당대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식민지하에서 매음부가 되는 과정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철저히 희생적인 성격의 것으로, 여성의 타락과 수난은 외세에 의해 침탈된 역사를 성적인 것으로 의미 전도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민족적인 것의 훼손된 표상으로 재구성¹⁴⁾될 수 있다. 또한 남성주체가 여성

13) 조르주 바타유, 조한경 역, 『내적 체험의 에로티즘』, 『에로티즘』, 민음사, 1997, p.42.

을 타자화하여 내부의 식민지로 만들었음을 보여준다.¹⁴⁾ 여성의 전략은 식민지 민중과 시적자아의 수난으로 이어지며 이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나아가 보다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과정으로 의미가 전도될 수 있다.

여성은 가장 취약한 민중으로 나약한 사회의 몰락과 위기의식을 보여주며 수난의 비극성을 강화한다. 『매음부(賣淫婦)』와 『古典』에 나타나는 매음부와 기생은 생명성을 상실한 물화된 육체로 퇴폐적이고 퇴영적인 시대를 의미화 한다. 이들의 육체는 풍요와 대척점에 있는 차갑고 비정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점에서 『매음부(賣淫婦)』와 『古典』은 식민지 현실의 위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 된다. 오장환은 위반의 기호인 性을 택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강한 거부와 저항의지를 드러낸다.

퇴폐의 극단에서 나타나는 오장환의 죄의식은 『불길한 노래』에 이르러 자기부정과 세계부정, 자기 파괴의 지점으로 나아간다. 『불길한 노래』에 이르면 오장환의 자학은 거침이 없다. “나요 오장환이요”로 시작되는 자조적이고 도발적인 시행은 “검은 먹구렁이”, “음부 마리아”, “집시의 계집애”, “이브”, “사탄”, “카인의 말예”, “병든 시인”, “벌(罰)”, “기생충”, “독한 버섯”, “번뇌” 등 위반의 존재에 시적자아를 은유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이브의 후예이자 동생을 살해한 카인의 말예로 규정한다. 이것은 시적자아를 죄성으로 가득 찬 추악한 죄인으로 파악하는 태도이며 매음녀의 몸이 지니는 것과 유사한 기호를 변주한다.

『불길한 노래』는 회복할 수 없는 타락한 현실과 이러한 현실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시적 자아의 자학이자 절규이다. 그의 절규는 자기 환멸과 자기부정이 교차하면서 출생조차 부정하는 원죄의식으로 이어진다. 『불길한

14) 권명아, 『수난사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진 민족 이야기』,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p.239.

15)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I』,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p.71.

노래』는 실낙원의 무질서와 부조화, 자기 파괴의 부정적인 의미소를 내장한다. 그러나 자기 부정은 긍정으로 나아가려는 에너지의 분출이며 퇴폐성에 몰입함으로써 오히려 생명을 철저히 긍정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장환은 시적자아를 “검은 떡구렁이”, “음부 마리아” 등에 비유하며 금기를 위반하는 원죄의 체험을 실행한다. 이것은 부정적 자아의 내면 풍경¹⁶⁾을 보여주며 신성모독을 수단으로 금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속죄제의를 시도한다.

『마리아』에 이르면 더욱 모순적인 위반의 형태를 드러낸다. “마리아에게 산기가 있는 날 먼 곳에서 산파는 인력거를 타고 찾아왔었다. 그리고는 삼칠일이 채 지나지 않아 늙은 목동이 어린아가를 안고 건너편 언덕으로 가버리었다.”(마리아) 오장환은 성모이자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마리아를 매음녀와 동일시하며 마리아의 잉태를 타락과 불결의 징표로 삼는다. 유혹의 대상은 미화될수록 치명적¹⁷⁾이다. 이것은 순수와 타락의 이분법에 의해 여성이 동정녀와 창녀로 도식화되는 남성적 환상의 구조를 확인¹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불결과 퇴폐성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재하는 순결성과 대조를 이루며 성과 속의 이중적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여성 표상은 한결같이 내성적이고 침묵하는 존재이자 오로지 남성 타자에 의해서만 의미가 부여되는 존재들이며 남성적 세계에 의해 지배되는 모순적인 구조를 내재한다. 이들은 개별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일반적 상징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성모와 창녀, 성과 속은 근대의 양가적 속성을 재현하는 것으로, 여성의 몸은 현실이 반영되는 실존의 구체적인 장소가 된다. 원래 금기의 대상은

16) 전미정, 『한국시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세 가지 양상』, 『한국 현대시와 에로티시즘』, 새미, 2002, p.117.

17) 전미정, 위의 책, p.64.

18) 권명아, 앞의 책, p.301.

신성하며 신성은 금기의 매혹적 양상이다.¹⁹⁾ 오장환은 금기의 기호인 성을 통해 억압적 현실에 대한 반항과 전복의 의지를 천명한다. 원죄의식은 불안과 허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황폐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하며 자학하는 시적자아를 반영한다. 매음녀와 마리아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성에게 귀속되는 여성을 통해 유교적 폐습과 모순된 계급의식, 봉건적 권력이 유지되고 있는 전근대적 현실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IV. 문명의 비만성에 대한 탐색

도시는 인위적인 공간이다. 도시는 욕망과 투쟁의 장소이며 익명의 개인들이 살아가는 장소이다. 도시의 삶은 정체성 상실과 단절의 체험이다. 오장환은 삶의 모순이 응집된 도시를 죽음의 이미지를 통해 극대화시킨다. “거대한 수부의 거대한 위장”은 도시의 비대한 육체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보들레르를 통해 상징주의 문학의 세례를 받은 오장환에게 수부(首府)는 우울한 파리의 모습에 비견할만한 곳이었다. 발터 벤야민은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에서 도시의 산책자 개념을 설정해냈다. 산책자는 익명의 군중 사이에 놓인 불안하고 우울한 존재로 물신화된 도시의 비만성과 관능성을 동일한 기호로 풀어낸다.

오장환은 욕망의 집결지라 할 수 있는 도시를 탐색하며 도시의 병리성을 발견한다. 도시의 병리성은 개인의 병리이자 집단의 병리로, 도시의 근대적 성격이 내재하는 자유와 진보의 이면에는 개인과 집단을 억압하는 위협적인 요소가 동시에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양가적 속성은 서로 다른

19) 조르주 파타유, 앞의 책, pp.76-77.

가치체계와 세계관의 충돌을 내재한다. 오장환은 도시를 정신적인 가치가 배제된 물질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로 판단한다. 그는 도시를 관찰하고 도시의 일상과 현실을 경험한다. 식민도시의 타락한 문명은 타나토스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실낙원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는 실낙원의 공간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억압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한다.

1

수부의 화장터는 번성하였다.
 산마루턱에 드높은 굴뚝을 세우고
 자그르르 기름이 튀는 소리
 시체가 타오르는 타오르는 끄름은 맑은 하늘을 어지러놓는다.
 시민들은 기계와 무감각을 가장 즐기어한다.
 금빛 금빛 금빛 금빛 교착(交錯)되는 영구차.
 호화로운 울음소리에 영구차는 몰리어오고 쫓겨간다.
 번잡을 존중(尊崇)하는 수부의 생명
 화장장이 앉은 황천고개와 같은 언덕 밑으로 시가도(市街圖)는 나래를 펼쳤다.

2.

덜크덜크덜크덜크덜크 화물열차가 철교를 건널 제
 그는 포식하였다.
 사처(四處)에서 운집하는 화물들
 수레 안에는 꿀꿀거리는 도야지 도야지도 있고
 가축류 - 식료품. - 원료. 원료품. 제묵, 이름드리 소화되지 않은 채목들 -
 석탄 - 중석 - 아연 - 동, 철류
 보따리 먹대기 가마니 콩 쌀 팔 목화 누에고치 등
 거대한 수부의 거대한 위장(胃腸) -

- 「수부(首府)」 부분

오장환은 화장장 아래 펼쳐진 도시가 병적인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부제 “수부(首府)는 비만하였다. 신사와 같이”에 나타나듯 비만한 신사는 도시 수부(首府)의 상징이다. 비만함은 도시의 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육체성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된다. 비만한 신사는 매음녀의 몸과 동일한 기호를 생산하며 왕성한 생명력과 죽음의 이미지를 동시에 환기한다. 수부(首府)로 지칭되는 비대한 도시는 혼돈과 파괴, 무질서와 죽음의 속성을 보여준다. 수부는 “화장터”, “시체”, “기름기”, “금빛”, “영구차”, “호화로운 울음소리” 등으로 가득한 화려한 장소로 퇴폐적인 문명을 상징한다. 오장환은 황폐한 현실에 대한 시적자아의 인식을 카오스적인 도시를 통해 재현하고 있다.

2연은 도시의 비대한 육체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수부(首府)」가 가진 탐식성을 통해 비만이 전반으로 확장되어 막다른 지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인식에 닿는다. 3연에 이르면 도시의 화려한 이면에 도사린 병리적 문제가 식민도시의 불모성과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공장촌”, “연돌(煙突)”, “직공들은 키가 줄었다.” “동무는 죽어나갔다.”, “연기를 품고 무작정하고 생산”을 하는 공장, “켜로 날리는 먼지처럼”, “토막(土幕)들”, “굵벵이 떨어지는 추녀들”, “룸펜의 우거(寓居)”, “다리 밑 거적매기”, “노동숙박소”, “무주시(無主屍) - 깡통” 등은 빈곤과 슬럼화, 실업, 가출, 가족해체 등의 총체적인 병리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병리적 현상을 생산하며 비정상적인 도시를 구성해 나간다. 오장환은 직공, 공녀, 룸펜, 행려병자들을 통해 근대의 양가성을 체험하는 무기력한 주체들을 통찰한다. 이들은 근대도시가 앓고 있는 인간성 상실과 극단적 소외, 실존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들로 오장환은 이들을 통해 도시의 현실과 왜곡된 근대성에 대한 인식을 담아낸다.

오장환은 「수부(首府)」의 병리적 현상을 경험하면서 전통의 유습인 가

부장적 논리와 식민 질서가 맞물려 증폭되는 기형적인 현상을 인식한다.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화장터”, “화장장”과 같은 죽음의 이미지는 타락해 가는 도시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며, 무절제나 욕망을 확장하는 이미지이다. 관능성과 비만성, 죽음의 이미지는 동일한 기호를 생산한다. 또한 죽음은 암담한 사회 현실과 식민지라는 허위의 공간이 발산하는 불안한 징후를 투사한다.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지식인의 고뇌와 허무주의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종말론적인 회의는 실낙원의식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수부(首府)」는 화장터가 변성한 도시를 죽음이라는 위반적 행위를 통해 영속성을 보장받는 연속성의 세계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재한다. 마지막 11연의 “수부는 지도 속에 한낱 화농된 오점이었다/ 숙란하여가는 수부 - / 수부의 대확장 - 인근 읍의 편입”은 수부의 확장을 통해 부정적인 기호를 강하게 환기하며 위반의 극단을 향해 나아간다. 무질서한 변성과 죽음은 친화적인 것으로 오장환은 생명과 죽음의 역학적 관계와 위반의 제의적 방식을 통해 타나토스적 상황에 놓인 도시 수부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는 「해수(海獸)」에 나타나는 병적인 욕망의 집결지로서의 음습한 도시와도 궤를 같이 한다. 오장환은 이러한 허무의식을 통해 근원적인 질문을 환기하면서 시적자이를 억압하는 금기에 도전하고 사회적·역사적 존재로서의 계기를 획득한다.

쓰르갯바람은 못 쓰는 휴지쪽을 휩싸아가고

덧문을 칩, 칩, 걸어닫은 상관(商館)의 껍데기 껍데기에는 맨 포스터 투성이.

썩 퍼지는 변화가의 포스터

주보(酒甫)

초저녁 북새통에 갓을 비뚜로 쓴 시골영감

십년지기처럼 그 뒤를 따라 나가는 늙은 줌도적!

음험한 눈자위를 구울리며 쏙덜쏙덜 수군거리는 거지

한 구두를 흠키어잡고 달아나는 아편쟁이 눈썹이 싹푸른 청인(淸人)은 흠
침흠침 피침을 추씩거리며 밖으로 나온다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생명수! 생명수! 과연 너는 아편을 가졌다.

술맛이 쓰도록 생활이 고달픈 밤이라 뒷문이 아직도 입을 다물지 않은 중화
요리점에는 강단으로 정력을 꾸미어가는 매음녀가 방계처럼 뺏낱질을 하였다.

검검한 골목으로 드나드는 사람들 - 골목 뒤로는 얼은 추녀 밑으로 시꺼먼
복장의 순경이 굴뚝처럼 우뚝 다가섰다가 사라지고는 사라지고는 하였다.

영화관 - 환락경. 당구 - 마작구락부 - 도박촌.

- 「야가(夜街)」

오장환은 식민자본에 의한 강제적 근대화를 도시 병리현상의 중요한 원
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야가(夜街)는 병든 도시의 풍경을 통해 문명의 폭
력적인 현실을 고발한다. 도시의 번성과 팽창은 무절제한 과잉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부패한 문명사회가 보여주는 위기와 혼
돈은 “휴지족”, “포스터 투성이”, “주보(酒甫)”, “시골 영감”, “늪은 줌도
적”, “아편쟁이”, “눈썹이 싹푸른 청인(淸人)”, “매음녀”, “순경” “중화요리
점”, “영화관”, “환락경”, “당구”, “마작구락부”, “도박촌” 등 부정적인 대
상과 관련하여 의미화 된다. 이것은 존재의 거세를 경험하게 하는 과잉으
로 죽음을 향한 유예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장환은 도시를 구성하는
퇴폐적 요소들을 통해 스스로를 철저히 낭비하는 과정을 거치며 위기로
나아간다. 「야가(夜街)」는 비대한 문명에 바쳐진 제물로서 상징적 제의의
식을 보여주며 존재들의 변화를 예고한다.

부패하고 병든 도시가 가지는 소진성이나 소비성은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불연속적인 존재들의 증식만 있는 막다른 길에서의 유일한 탈출

구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²⁰⁾ 이러한 점에서 오장환은 죽음이 가지는 금기의 성역에 직접 부딪히고자 한다. 위반은 금기를 부정하는 대신 오히려 금기를 초월하고 완성²¹⁾시키는 측면이 있다. 제의의식은 죽음에 의해 존재의 한계를 벗어나 연속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오장환의 작품은 금기의 절대적 성역을 부정하고 극복하며 금기를 초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야가(夜街)』는 팽창하는 문명의 무질서와 불연속적 존재들을 통해 자신을 부정하는 권력의 질서를 부정하며 시적 자이를 밖으로 내몬다. 『야가(夜街)』는 『수부(首府)』와 함께 타락한 성과 무질서를 통해 현실을 뒤엎고 무너뜨리는 과정으로 나아가려는 시인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한다. 무질서 속에는 질서가 내재되어 있으며 무질서는 질서의 전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위반의 시공간이 질서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한다²²⁾는 역설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이다. 퇴폐성을 의식하면서도 퇴폐성에 극단적으로 함몰하는 오장환의 이러한 시적태도는 결국 비이성에서 이성으로, 비합리성에서 합리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표현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시적자이를 억압하는 금기로부터 벗어나 조화로운 질서의 체계 속에서 존재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오장환의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V. 결론

금기는 한 집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원리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영

20) 조르주 바타유, 앞의 책, p.115.

21) 조르주 바타유, 앞의 책, p.71.

22) 정종진, 앞의 논문, p.95.

역에 속한다. 금기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요소로 다양한 형태의 억압이 개입되며 위반의 충동을 필수적으로 내재한다. 금기와 위반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오장환의 작품에 나타나는 봉건질서에 대한 거부와 위반의 기호로서의 성, 원죄의식, 근대 문명의 비만성에 대한 탐색과 함몰은 부정할 수 없는 절대성에 대한 부정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금기에 대한 위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오장환은 위반의 주체가 되어 봉건 질서와 전통에 저항하고 매음부와 기생, 마리아 등을 통해 자아의 반항을 극단으로 밀고 나갔다. 또한 의도적으로 신성을 격하시키고 모독이라는 위반의 원리를 이용하여 생명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며 병적인 도시의 비만성을 통해 물신화된 도시에 던져진 불안한 존재를 탐색하였다.

유교적 질서는 전통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이며 저항이 금지된 절대 권위, 금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오장환은 유교적 전통과 명분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 이것은 그의 태생적 결핍에서 비롯한 것으로 정치·사회적 변화와 역사의 전환점에 놓여있던 당대의 특성과 맞물려 타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아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부장제의 폐습 아래 놓인 여성의 질곡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유교적 전통과 명분은 역사 속에서 절대적 위치를 장악해 온 것으로 그는 부권의 부정적인 공간 속에서 여성이 겪는 불우한 삶에 대해 명백한 거부를 표출하였다. 그것은 시적자아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닫힌 공간에서 탈출하여 인간 존엄성에 바탕하는 새로운 근대를 체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근대도시 또한 전통적 가부장 사회의 폐쇄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불모의 공간이었다. 그는 낡은 전통과 근대도시의 허구를 고발하고 폭로하면서도 이 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였으며 새로운 자기선언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나가하고자 하였다.

오장환이 체험한 불화는 금기의 영역에 저항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위

반의 장소이자 통로로 삼았다. 그는 위반의 기호로 타락한 성을 택하며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발산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의 작품은 성과 속의 전도를 기획하였으며 식민지 도시의 부패한 현실 속에 온몸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퇴폐성은 자아를 찾기 위한 극단적인 방식이었다. 그는 매음녀와 기생 등 소외되고 주변화된 식민지 여성을 통해 폭력적인 현실을 드러내었으며, 당대 조선의 현실과 매음녀, 기생들의 삶을 교차시키고 이러한 삶을 양산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들 율락여성들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잔재이거나 상품화된 육체로 가부장제의 폐습과 식민 자본주의의 성적 수탈이라는 이중의 질고를 경험하였다. 유교적 가부장사회에서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었던 여성이 전락을 거듭하여 매음녀가 되어가는 현실은 시적자아가 처한 현실뿐만 아니라 식민지가 처한 비극적 현실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이들의 성은 불임을 강요받는 성으로 당대 현실과 맞물려 사회적 제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점이 되었으며 시적자아의 근원을 고민하는 인식론적 차원으로 발전해 나갔다.

오장환의 시는 병든 도시의 현실을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 비판하였다. 그에게 도시는 유교적 폐쇄성에서 탈주한 공간이었으나 합리적 근대성을 향한 의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도시는 양면성을 지닌 곳으로 유교적 전통사회가 지닌 위선과 위악성을 상기시키는 억압적이고 위협적인 공간이었다. 또한 기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좌절과 패배의식을 안겨주는 물질적인 공간이었다. 오장환은 술, 도박, 실업, 빈민, 매음, 마약 등으로 병든 도시를 통해 사회·역사 속에서 느끼는 갈등과 무력감을 드러냈으며 시적자아를 극단적인 방황과 퇴폐로 몰고 갔다. 매음녀와 기생, 마리아를 비롯한 주보(酒甫), 줌도적, 거지, 아편쟁이 등 도시의 거리를 떠도는 자들에 대한 인식 또한 시적자아에 대한 자학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주변화 되고 소외된 타자들이며 이들의 불우한 삶과 불

모화된 육체성은 병든 도시의 비만성과 같은 의미를 산출하였다. 이들은 퇴폐의 극단으로 치닫고자 하는 시인의 자의식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오장환은 이러한 실낙원의 도시에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자아를 억누르는 억압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오장환의 시에 나타난 금기의 인식과 위반의 충동을 연구하였다. 유교적 전통세계에 대한 오장환의 거부와 저항은 위반으로 발전하게 되고 세계와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자기갱신의 문제로 나아갔으며 마침내 금기를 넘어서는 속죄제의의 지점으로 전환해 나갔다. 그는 근대의 양가성을 체험하는 무기력한 주체들을 통찰하고 왜곡된 근대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근원적인 질문을 환기하면서 자아를 억압하는 금기에 도전하고 사회·역사적 존재로서의 계기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오장환의 작품은 개인과 가족에서 출발하여 사회, 민족과 같은 보다 큰 인식의 지평으로 차원이 확대되었다. 그의 작품은 일제강점기 아래 사회·역사의 변화를 보여주며 그 속에 놓인 존재의 위기를 탐구하고 자기 확인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오장환의 시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전통과 근대의 경계에서 부당한 금기에 도전하고 식민자본주의 아래 몰화되어가는 현실을 고뇌하는 ‘근대적 주체’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재용 편, 『오장환 전집』, 실천문화사, 2002.

김학동, 『오장환 평전』, 새문사, 2004.

2. 단행본 및 논문

강경희, 「오장환 시의 근대적 미의식 연구」, 『어문연구』 33권, 2005, pp.305-328.

김종태, 「오장환 시의 여성성에 나타난 현실 인식 방법 연구」, 『한국시학연구』 14호, 2005, pp.209-235.

김진희, 「1930년대, 식민지 근대의 불모성과 여성-오장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 연구』 7권, 2002, pp.217-242.

김철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남기혁, 「오장환 시의 육체와 퇴폐, 그리고 모럴의 문제」,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54집, 2012, pp.155-190.

도종환, 「오장환 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2005.

손민달, 「물화(物化)가 보여준 오장환 시의 근대성」, 『국어국문학』 171호, 2015, pp.505-534.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전미정, 『한국 현대시와 에로티시즘』, 새미, 2002.

정종진, 「금기 형성의 특성과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의미」, 『인간연구』 23호, 2012, pp.81-104.

조현아, 「오장환 시의 공간과 분열의 문제」, 『한국시학연구』 41호, 2014, pp.309-338.

최두석 편, 『오장환 전집 2』, 창비, 1989.

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사, 1998.

조르주 바타유,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97.

Abstract

The awareness of taboo and the impulse of violation
in Oh Jang-hwan's Poetry

Seo, Young-hee

Taboos are the elements which restrict and bind human ideas and acts with the impulse of violation essentially inherent in them. Oh Jang-hwan resisted the feudal order as a subject of violation and exhibited his self-awareness as a social order. He reported on the falsehood of the antiquated traditional society and modern cities and tried to achieve self-diffusion through self-denial by choosing sex that had deteriorated as a sign of violation. He drove his poetic self towards extreme wandering and decadence through the obesity of sick cities. In addition, by depicting women that were the object of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in the patriarchal Confucian society and suffered double hardship of economic and sexual exploitation during the years of colonial capitalism in the 1930s, he tried to reveal the tragic reality that was etherized in a clear way. The fall of women became a point that would display all the problems of the society in the most candid ways in those days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his works rising to the epistemological level of having a contemplation over the origin of a self and asking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life. His works challenged the irrational taboos at the boundary between tradition and modern times, made an inquiry into the crisis of existence, and revealed his intention to capture opportunities for social changes and historical development. His works are significant as they depict a model of modern people that recognized the world with reason and rationality and had agony over the reality that underwent reification under colonial capitalism.

Key Word : Oh Jang-hwan, feudal order, taboo, violation, inquiry into the existence

서영희

소속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교수

전자우편 : munji64@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